

신바람 복지 위한 민생현장 점검

우범기 전주시장, 노송 공동육아나눔터·세대통합형 돌봄센터 조성사업 현장 방문 추진상황 살피

‘한 걸음 더, 시민 속으로’ 파고들기 위해 연일 민생현장을 찾고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 구현을 위해 육아·돌봄 현장을 찾아 나섰다.

우범기 시장은 27일 '2024년 제10차 민생현장 행정'의 일환으로 오는 4월 개소를 앞둔 노송 공동육아나눔터와 노인·아동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 거점 공간인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조성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먼저 우 시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로서 양육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 4월 개소 예정인 노송 공동육아나눔터를 찾아 시설물 구축 현황 등 개소 준비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전주지역 6번째 공동육아나눔터로 조성된 노송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해 3월 공간 발굴에 이어 지난 10월 신한금융그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8400만 원 상당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노송 공동육아나눔터가 예정대로 오는 4월 차질 없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철저한 시설물 안전 점검을 지시하고, 개소 이후 공동



우범기 전주시장은 27일 '2024년 제10차 민생현장 행정'의 일환으로 오는 4월 개소를 앞둔 노송 공동육아나눔터와 노인·아동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 거점 공간인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조성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육아나눔터가 활기를 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5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며 월평균 35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공간나눔(살내놀이, 장난감도서관 운영) △돌봄나눔(가족 품앗이 활동, 부모교육 등) △지원 나눔(장난감 대여, 홍보 등)의 3가지 주

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 시장은 이어 덕진구 인후동에 총 6층 규모의 건물로 조성되는 복지 거점 공간인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조성 예정지를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세대통합형 돌봄센터는 노인·아동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1~2층은 노인복지관 분관, 3~4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각

각 설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노인복지관 분관에서는 노인들의 우울감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전문적인 여가 프로그램이 운영돼 시민들의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입주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다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보육 교직원 교육 및 상담, 보육 컨설팅 등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운영 △장난감(도서)대여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 가정양육을 지원한다.

이후 우 시장은 향후 조성될 세대통합형 돌봄센터가 지역 내 다양한 세대가 상호작용하며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인 만큼, 안전한 공사 및 주민 편의를 위한 추가 콘텐츠 발굴 등을 주문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도시 곳곳에 다양한 계층이 누릴 수 있는 복지시설을 늘려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세심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가족과 함께 풍성한 음악 즐겨요”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서 11월 말까지 가족음악회 운영

전주시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에서 시민들을 위한 ‘문화가 있는 가족 음악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28일 열리는 올해 첫 공연에는 정박트리오가 ‘기타, 전주를 만나다’를 주제로 공연에 나선다. 정박트리오의 클래식 기타로만 이루어진 팀으로, 기타라는 악기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며 기타로 다양한 음악을 표현한다. 이들은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편곡하여 다양한 곡으로 봄의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후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에서는 △W백소폰앙상블의 ‘클래식과 함께하는 감성 찬란 콘서트’ (4월) △양상범 봄의 5월의 봄이 찾아온 어린이 클래식 콘서트 (5월) △예술단 바른의 ‘Screen Concert’ (6월) △디데트의 ‘집시를 인도할 여행’ (9월) △무직회사의 ‘가을의 사랑 콘서트’ (10월) △이희의 ‘겨울이 온다’ (11월) 등 다양한 음악 공연이 예정돼 있다.

공연 세부 일정 확인 및 참여 신청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30-1867)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앞서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는 지난해에는 ‘문화가 피어나는 공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과 샌드아트, 버블공연 등 총 9회의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총 879명의 시민이 참여해 공연을 즐겼다.

이강준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재롭게 시작하는 봄에 풍성한 음악을 통해 가족과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모두를 위한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해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는 음악 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창작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복합문화센터 내 ‘모야’에서는 △제로웨스트 설계지바 만들기(4월) △비즈악세서리 만들기(6월)가 운영되며, ‘청소년 창작기지’에서는 △미싱공방, 파우치로 재봉을 입문하기(4월) △미니어처, 책과 함께하는 다과상 만들기(6월)가 운영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예수병원 이덕자 간호과장,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상 수상

전주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지난 제7회 전북간호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이덕자 간호과장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덕자 간호과장은 탁월한 리더십과 안정적인 병동 관리 유지를 최우선으로 강조했으며, 환자치료에 대한 헌신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특히 병동 내에서 환자의 신뢰 구축을 위해 헌신한 결과로 직원과 환자 간의 의료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환자

만족도와 직원 복지가 크게 향상됐다.

신충식 병원장은 “환자안전을 최우선시하며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과에 감사하다”며 “병동 간호과장이 자신의 우수성을 발휘하고 노력과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니 예수병원 간호사 전체가 상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덕자 간호과장은 “환자와의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해 환자가 더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덕진구, 7월까지 찾아가는 동 순회설명회 실시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봉정)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서비스 안내를 위해 3~7월까지 ‘찾아가는 동 순회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3월 3개 동을 시작으로 전체 16개 동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고립·은둔 가구 또한 증가하고 있고, 복지제도를 모르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 기획되었다. 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 제일 가까이 있는 인적지원을 활용해 복

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구는 동 자생단체 회의에 참석하여 회원들에게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예방·관리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민간의 제보를 활성화해 탄탄한 복지안전망을 구축, 민·관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줄길 기대하고 있다.

김봉정 덕진구청장은 “인적안전망 활용을 통한 촘촘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에 힘쓰고, 시민이 파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 복지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우이동 일대 안정적 수도물 공급

전주시, 5월까지 상수도 수압 저하 개선 공사 추진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선 전주시 우이동 동신초등학교 일대에 맑고 깨끗한 수도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최병집)는 오는 5월까지 총 2억5,000만원을 투입해 ‘우이동 일원 상수도 수압 저하 개선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지난 1월 이 일대에서 발생했던 급수 불출 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고, 대규모 공동주택단지(6편한세상, 우이한시티@) 조성 이후 저수조 급수에 따른 인근지역의 수압 저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당시 이 일대에는 수도물 공급이 18시간 가량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시가 단수의 원인을 파악한 결과 △신규 공동주택단지의 저수조 일시급수에 따른 인근 수압 저하 △미세한 누수 △해빙기 지반이완으로 인한 관

로 외압 증가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에 시는 수압 저하에 대한 개선책으로 대수용량 전용관(0.3km)를 별도로 신설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와 일반수용가 간의 급수를 분리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상수도 급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협력단과의 협업을 통해 오는 4월부터 추진되며, 시는 공사 시행 전 사업 대상지 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와 상가·주책 등 일반수용가에 대해 사전 홍보를 시행하는 등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병집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우이동 일원 상수도 수압 저하 개선 공사가 잘 마무리돼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면, 수압 저하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부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